

사 고 세 부 사 항

■ 사고 세부사항	
01. 사고 일시: 2018. 01. 24. (수)	
02. 사고 장소: 소버린 아일랜드 요트선착장 인근도로 (Sovereign Islands, Paradise Point, Queensland, Australia) · 연방 부서: Division of Fadden/ · 지방정부 행정구역: 골드 코스트 시티	
03. 사고 개요 · 2018년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동계 해외교육연수에 참가한 대학원생 김가현은 사고 장소에서 하차 도중 버스운전 기사(호주: 캡틴)가 급출발, 급정차하였음. · 급브레이크에 의해 차량 내부 중 후반쯤 부터 출입구 까지 튕겨나감. 버스 출입구 계단 아래 바닥에 굴러 떨어져 골절 및 타박상을 입음.	
04. 전체 세부사항 : 인솔자는 마지막까지 하차 확인을 하지 않고 먼저 간 사실이 있는가. · 인솔자는 사고 당시 팀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요트가 있는 선착장으로 이미 가있었음. ·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선착장에 왔을 때 요트 선착장 밖 철문은 닫혀 있었고 요트 운전자는 부두에 묶인 요트 밧줄을 풀고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음. · 그때 까지도 인솔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팀원이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 김가현과 김가현을 부축하고 있는 연수 참가자 동료와 선착장에 부근에 함께 도착했을 때, 그때서야 덜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 버스에서 구르는 사고가 났다고 사고 상황을 알렸으나 철문을 열고 우선 빨리 요트에 태움.	
운 전 사	<p>소버린 아일랜드 요트체험을 위해 승객을 하차시켜주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인 운전자는 정차·하차구간이 아닌 곳에서 급히 하차를 시켰음. (승객의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했음) 승객이 모두 하차 했는지 확인 하지 않은 채 출발. (하차 하는 승객에게 "마지막이에요? 다 내렸어요?" 라고 묻고 승객말만 듣고 출발했으며, 뒤편에 서서 나가고 있던 김가현은 내리고 있던 앞 승객과의 대화를 듣지 못함. 내부 룸 미러로 남은 승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함. 이때 김가현은 손을 들고 "여기 남은 사람 있어요! 잠시만요! 저 내려요!" 라고 소리치며 앞으로 나가고 있었음. 차 밖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음. 진술서 추가 첨부하였음.) 급정거 : 승객이 남아있음을 인지했을 때 급정거로 승객이 날아가 고꾸라졌음. 갈비뼈를 부여잡고 신음하며 일어나지 못하는 승객에게 소리쳤음. (사고 발생 당시 버스 문이 닫혀 있었고 김가현과 운전사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음.)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출입구에 처박혀 있는 승객을 일으켜 주지 않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내려다보며 가만히 있었음 (쓰레기통과 함께 나뒹굴어진 승객에게 소리를 질렀고 승객은 수치감과 고통을 함께 느낌) 김가현은 겨우 몸을 반쯤 일으켜 문에 기대고 있을 때 쯤 버스 문을 열었고 밖에 서있던 연수 참가자가 김가현이 갈비뼈를 부여잡고 버스 출입구에 기댄 모습을 목도하였음. 버스기사는 문 밖에 서있던 연수 참가자에게도 버럭 하였음. "누가! 마지막라고 했어요!!" 사과한마디 한마디 없이 하차 시킨 후 바로 버스 문을 닫고 버스를 몰고 사고지점을 떠났음. 다음 일정에서야 웃으며 "아가씨 미안하니까 내가 커피한잔 살게!" 라고 말함.
인 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퍼스도착 후 인솔자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음. 인솔자는 "한국갈래요?" 라고 했음. (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태, 상황인지, 치료를 해서 보내야 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음) 김가현은 일단 병원부터 가겠다고 했음. 그러나 가이드와 응급실에 갔고 인솔자는 동행하지 않고 숙소로 올라가 잤음. 한국에 가더라도 적절한 치료 후 부상자의 상태나 의사에 따라서 귀국 및 연수 일정에서의 배려나 조치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 주지 않고 "여행자보험은 최대 300만원까지예요" 라고 하였음.
가 이 드	<p>퍼스 가이드에게 다친 사람이 있음을 인수인계 하지 않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솔자와 마찬가지로 팀원이 모두 도착하기 전에 인솔자와 함께 나머지 팀을 요트에 태우고 닫혀있는 철문 앞에 나란히 서있었음. (철망 문 밖에서 밧줄을 풀며, 나머지 팀을 태워 출항 준비를 하는 요트를 인솔자와 나란히 지켜보고 있었음)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음. 공항으로 도착해서 연수 참가자 정유정에게 잘 돌봐주라고 부탁한 뒤 사고발생 사실을 퍼스 가이드에게 전하지 않았음.

환자의 상태 : 좌측 갈비뼈 골절. 현재 이춘택 병원에서 6주 이상 회복기간 소요를 진단받고 입원 중.

아픈 곳

1. 숨 쉴 때 마다 갈비뼈 통증
2. 걸을 때 마다 골반통증
3. 앉아 있을 때, 걸을 때 꼬리뼈통증
4. 딛고 있거나 걸을 때 발 뒷꿈치와 발가락 통증
5. 여행 중 비행시간동안 갈비뼈에 극심한 통증을 느낌 (퍼스 공항 도착 후 고통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요구함)

환자의 상태

멍든 곳

1. 종아리
2. 양쪽골반(엉덩이)
3. 발톱
4. 발 뒷꿈치
5. 옆구리 (좌측 갈비뼈 일대)
6. 팔꿈치
7. 기타증상: 5일 이상 진통제와 감염 방지약을 복용하여 위장 쓰림, 오심, 피부가 모두 뒤집어짐



■ 일정을 모두 소화한 게 아닌가?

01. 공식일정 일부 / 자유일정은 전혀 못함

멜버른 자유일정에서 플랜을 세워온 개인 일정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으며 멜버른 주립 도서관 1층에 계속 앉아있다 왔음. 시드니에서는 팀들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안 벤치에 앉아있거나 진통제를 먹고 몇 가지 일정만 따라다님. 너무 힘들 때는 버스에 그냥 남아있기도 함.

02. 선생님들께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음

공식일정은 팀에 되도록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투어버스에서 내려 팀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버스 근처 벤치나 연석에 앉아 있다가 팀과 합류하여 함께 버스에 올라타며 일정을 소화하였음.

03.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

퍼스병원에서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다는 소견에 아프지만 조금은 안심을 하였음. 응급실이 너무 혼잡하고 엑스레이 사진이 너무 밀려 기사가 바쁘다는 말을 간호사가 전하였음. 대기 시간 또한 매우 길었음. (자정쯤 ER에 가서 새벽 6시에 응급실에서 나왔음) 감염 방지약과 더불어 진통제를 매일 6알씩 먹어 약물로 인해 통증이 조금은 완화된 상황이었음. 그러나 지속적인 통증은 있었음.